

‘완도 황칠’ 활용 문화 콘텐츠 개발…산림 복지 혜택 확대



군, 80억 투입 산림치유단지에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목재체험실·나무 상상놀이터·목재정원 등 1500m² 규모

완도군이 목재 문화 체험장 건립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산림 복지 혜택을 확대 한다.

16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읍 가용리 편백숲 일원 산림치유단지 내 ‘목재 문화 체험장을 조성한다.

총 사업비 80억원(도비 64억원, 군비 16억원)이 투입되며, 2026년부터 3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은 지역별 특색 있는 목재 문화를 기반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다양한 계층이 목재 문화를 체험하고, 전문 목공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체험장은 5000m² 부지에 건축 연면적 1500m² 규모로 조성되며, 1층에는 목재 체험실, 목공 작업실, 자재실, 2층에는 나무 상상 놀이터, 나무 쉼터, 전시 판매실 등을 갖춘다. 야외에는 목재 정원과 전시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완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황칠 천연림이 분포하며, 삼국시대 이전부터 황칠 공예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완도 황칠’을 활용한 독창적인 목

재 문화 체험 콘텐츠 등을 개발·운영하는데 유익한 점이 있어, 앞으로 전통문화 계

체험장까지 들어서면 다양한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체험장에서 만든 목공아이템을 출품하는 ‘목공페스티벌’을 개최해 군민 참여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불가사나무 숯 등 완도의 전통적 산림·목재 문화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군은 치유산업 확대 사업 일환으로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단

지 내 숲 속 야영장과 휴양림, 산림 레포츠 시설, 치유의 숲 등과 더불어 목재 문화 체험장까지 들어서면 다양한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을 완도 황칠 등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군민과 관광객에게 산림 복지 혜택을 두루 나눌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목포, 지역 상생 ‘눈에 띄네’ 행안부 사례 공모 우수상

목포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우수 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14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목포시는 ‘맛과 관광의 도시 목포 벤처와 손잡아 지역경제 상생의 길을 만들다’를 주제로 제출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목포를 방문했으며, 후속 교류 프로그램으로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동부시장장 보기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시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의 맛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해 참여 기관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자원을 실질적인 방식과 소비로 연결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실제 지난달에는 2025 광주·전남 제주 스타트업 통합 IR 캠프’를 목포미식문화밸리 해관1897에서 개최했다. 근대 역사문화공간을 활용해 지역 스타트업 가치를 높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창업 활성화 성과를 이끈 점도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목포시는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자매결연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목포=이훈기 기자



김산 무안군수,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김산 무안군수는 최근 무안군 늘어지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무안군

영암 8개 농협, 전 군민 의료서비스 혜택 ‘앞장’

‘농촌왕진버스’ 사업 선정…침술·검안 등 진료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년 농촌왕진버스 공모사업에서 영암군 내 8개 농협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영암군 역대 최다 규모의 신청 실적으로, 군내 11개 읍·면·주민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영암군의 농촌왕진버스 확산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2024년 2개 농협, 4개 읍·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농협과의 긴밀한 협력, 현장 수요 조사, 의료 접근성 취약지역 분석 등 세밀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농촌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역농협과 연계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한방진료, 침술, 검안 등 다

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만족도를 크게 높여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4000만 송이 애기동백꽃 향연… 신안 ‘섬 겨울꽃 축제’ 19일 개막

내년 1월 18일까지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서